

# 롯데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품는다… “경쟁제한 없다”

공정위, 롯데케미칼 인수 승인  
‘독과점 우려 없다’고 판단  
2차전지 시장 치열한 경쟁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승인했다. 국내 기업의 미국내 2차전지(배터리) 소재 사업 다각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0일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 등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지난해 6월 미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주회사인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10월 일진머티리얼즈 주식 53.5%를 약 2조7000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1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롯데케미칼의 이번 투자는 2차전지



롯데케미칼 대전연구소 전경.

/롯데케미칼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원료로 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의 음극 집전체 등으로 활용되는 동박(copper foil)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박은 2차전지 및 인쇄회로기판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얇은 구리막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인한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에서의 경쟁 변화를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은 다수의 유력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과편화된 시장으로 당사회사가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점유율은 5% 내외, 전지용 또는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시장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10% 내외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SK, LG 등 폭넓은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쟁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바, 이번 결합으로 인해 당사회사의 종합적 사업역량이 경쟁사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그룹은 2019년에 이미 동박 제조업체인 KCFT(현 SK넥실리스)를 인수했으며 분리막(SK아이이테크놀로지), 음극재(SK머티리얼즈) 등으로 관련 사업을 확장 중이다. LG그룹 역시 양극

재, 분리막 등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2차전지 소재 산업이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기존 업체의 사업 확장과 신규 업체의 진입을 통해 향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배터리 및 전기차 분야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는 전세계 전지용 동박 수요가 2021년 26만5000톤에서 2025년 74만8000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이 이뤄질 경우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도 사업 확장과 사업자 간 협력을 위한 기업결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 대상 포함

환경부,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7월 1일 시행… 4년 내 허가 받아야

오는 7월부터 시멘트 제조업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허가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 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 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멘트 제조업은 지난 2019년 기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물질이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7월부터 시멘트 제조업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자료DB

허가 대상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시설허가대상 업종은 기존 발전, 소각, 철강제조 등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게 된다.

해당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4년 간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

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시멘트 산업 배출량의 0.3%에 그쳐 환경오염시설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으로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코트라 ICT 컨소시엄 수출지원으로 계약 성과

9개 컨소시엄서 총 3200만달러 계약

KOTRA(코트라)는 해외 ICT 프로젝트에 컨소시엄형 진출을 지원하는 ‘2022년 ICT 수출 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9개 컨소시엄에서 15건, 총 3200만 달러의 성약 성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ICT 컨소시엄 수출지원사업은 스마트시티, 보안, 5G 통신, 스마트팜, AI 분야 중소기업 42개사가 14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KOTRA 해외무역관의 지원을 받아 추진했다. 참가한 14개의 컨소시엄 가운데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개의 컨소시엄에서 수출 계약 및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ICT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컨소시엄형 진출이 유력한 방안임을 증명했다.

전문가들이 심사를 통해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동시에 해외무역관을 통

해 수주나 계약을 위해 수 개월간 밀착 지원을 해오면서 성과를 거뒀다고 코트라 측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지역 광통신 기업 6개사로 구성된 ‘광통신 컨소시엄’이 중앙아시아 광통신 설치 프로젝트를 위해 현지에 합작법인 생산시설을 갖추고 지난 11월 우즈베크 텔레콤과 200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또한 ‘지능형 LED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마디운시의 가로등을 스마트 LED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68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에는 스마트전구, 전기차 충전폴 분야 전문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보안 컨소시엄’도 이대일 보안 국제 표준화 기구(ITU-T)에 표준으로 채택된 것에 이어 일본, 베트남, 오만에서 3백만 달러 규모의 보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 ysl@

## 남동발전 “소통의 기업문화로 기회 창출”

소통 토론회 열고 의견 나눠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9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10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남동발전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눔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 직원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MZ세대와 조직문화’, ‘지속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자가 화두를 꺼내면 ‘세대, 성별, 직급, 직군’ 간 벽을 허물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유롭게 진행된 토론 분위기에 따라 참석자들은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

존중과 배려의 윤리적 조직문화, 스마트 오피스 구현 등에 관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남동발전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안전 관리 체계강화와 대체건설 추진 방향을 위한 ‘공감 토론회’,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김희천 남동발전 사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힘은 소통의 기업문화에서 출발하는 만큼 바람직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중요하다”면서 “오늘의 이런 토론회문화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워크넷’ 인공지능이 연결해준 일자리 36%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  
작년 AI 서비스 취업자 5만7844명

지난해 정부 일자리 플랫폼 ‘워크넷’에서 인공지능(AI) 매칭 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비율이 3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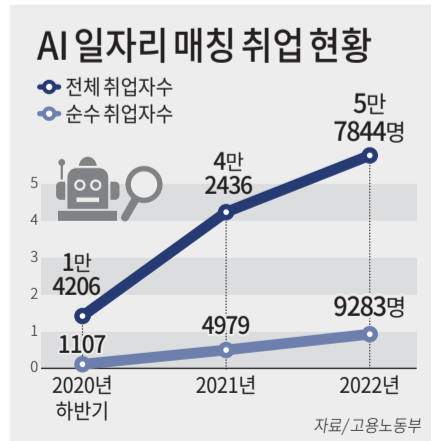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의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이 지난해 5만7844명으로 전년보다 36.3%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워크넷이 지난 2020년 7월 해당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취업자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

고 있다.

또, 구인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구직자에게 입사를 제안한 건수도 3배 이상 늘었다.

AI 일자리 매칭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구직자에게는 본인의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구인 기업에는 구인 공고에 맞는 구직자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의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개선 및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자료/고용노동부

을 강화했다”며 “서비스 도입 후 구직자의 통근 거리를 고려한 일자리 추천, 카카오 알람톡 내 서비스 유입기능 생성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세종=원승일 기자